

민간공원 수사 다음주 마무리

광주지검, 이용섭 시장 참고인 신분 조사 마쳐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도... 기소 대상 범위 관심

1년 가까이 끌어온 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비리 의혹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검찰의 최종 기소 대상자가 어느 선까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광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은 다음주 내에 그동안 수사한 결과물을 토대로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공개불가 결정이 날 경우 비공개로 정중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 등 관련자들을 기소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따라 다음주 중 검찰의 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비리 의혹 수사는 마무리되는 셈이다.

앞서 검찰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당시 업무를 총괄한 이정삼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정 부시장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상태다. 다만 이 전 국장의 두 번째 재판이 오는 8일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정 부시장 등에 대한 기소를 더 이상 미루기는 어

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광주시 정부 특별보좌관(정부 특보)의 집무실과 호반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뒤,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과 이용섭 시장의 친동생인 철근유통업자 이모씨 등을 소환하고 일부 피의자의 휴대전화까지 압수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후 이 이용섭 시장도 참고인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과정에서 이 시장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인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으며, 이 시장과 김 회장 등은 관련 혐의를 적극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 시장의 동생이 대표로 있는 A사가 2017년 호반건설의 협력업체로 등록한 이후 철근을 납품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의혹은 올해 광주지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만약 이 시장이 주장인 광주시가 민간

공원 2단계 특례사업에서 점수조작 등을 통해 2순위였던 호반건설을 1순위로 올리고, 호반건설은 우회적으로 이 시장의 동생 회사에 이익을 준 사실이 입증된다면 제3차 뇌물공여죄 및 제3차 뇌물수수방조죄 등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보도 자료를 통해 "A사의 철근공급과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용섭 시장의 전 직책) 관련 의혹제기 등은 틀렸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기존 3명의 피의자 외에 관련자들을 추가로 기소할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인 중앙공원 2지구에는 애초 지난해 11월 금호산업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으나 광주시 특정감사를 거쳐 같은 해 12월 우선협상자가 호반건설로 바뀌었다. 중앙공원 1지구 역시 광주도시공사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으나 도시공사가 우선협상자 지위를 포기하면서 (주)한양이 우선협상자로 바뀌었다.

10개 사업 대상지 가운데 노른자위로 꼽힌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자가 광주시 특정감사를 거쳐 변경되고, 최초 선정 과정에서 점수평가표까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박진표·김형호 기자 lucky@

‘광주일보’ 유료부수 2만8천부... 2·3위와 2배 격차

발행부수 3만5천부...광주·전남·전북 일간지 중 3만부 이상 유일

2020년 창사 68년을 맞은 광주일보가 광주와 전남·북 지역 일간지 중 발행부수와 유료부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25전쟁의 폐허 속에서 지역 언론의 선구자로 첫걸음을 내디딘 광주일보가 그동안 '역사의 증인이자 지역의 파수꾼' 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결과로 풀이된다.

광주일보의 유료부수는 2위 신문보다 2배 이상 많고, 발행부수도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3만5000부를 넘어섰다. 또 발행부수 중 유료부수 비율을 따지는 유료율은 79.10%에 달해 전국 일간지 중 최고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2일 한국ABC협회가 공개한 '2019년도(2018년도분) 전국 일간지 발행·유료부수 인증결과'에 따르면 광주일보의 지난해 발행부수는 3만5565부, 유료부수

는 2만8133부를 기록했다. 이는 광주·전남·전북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중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호남지역에서 발행부수를 3만부 이상 기록한 신문은 광주일보가 유일했고, 2위 신문과의 발행부수 격차도 1만부 이상이었다. 특히, 유료부수의 경우 광주·전남지역 2위 신문과의 격차는 2배 가량에 달했다.

지난해 5월 13일, 지령 2만1000호를 돌파한 광주일보는 4·19 혁명과 6월 항쟁, IMF 외환위기, 촛불 혁명 등 격동의 물결 속에서 호남 대표 언론으로서 위상을 높여온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제63회 신문의 날 기념 축하연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일보의 전신인 옛 전남매일신문 기자들이 독재 정권의 검열에 저항해 공동 사표를 2만 장의 호외로 뿌린' 일화

광주·전남지역 일간지 발행 유료부수

구분	유료부수	발행부수	유료율(%)
광주일보	28,133	35,565	79.10
A신문	16,374	25,437	64.37
B신문	16,893	24,238	69.69
C신문	10,234	16,176	63.26
D신문	10,006	15,623	64.04

한국ABC협회 2019년도 공사보고서

를 공개하기도 했다. 조성겸 ABC협회인증위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유기부수의 감소세가 몇 년간 소폭에 머무르고 있어 디지털시대에도 종이신문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면서 "고려하면 종이신문사들이 디지털시대에도 계속해서 언론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 된다"고 평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BTS 닭날개춤과 함께하는 광주투어”

市, 제이홉 ‘치킨누들수프’ 커버댄스 도전 영상 유튜브에 공개 인기몰이...광주 명소 알려



광주투어 참가자들이 방탄소년단(BTS) 멤버 가운데 한 명인 제이홉의 모교 '국제고' 운동장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케이팝(K-POP)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광주의 관광, 문화를 체험하는 영상이 지난달 31일 광주시 공식 유튜브 '빛튜브'를 통해 공개됐다. 이번엔 공개된 영상은 광주투어 참가자들이 처음 접한 광주의 관광, 문화를 체험하는 일정을 브이로그(VLOG) 형식으로 촬영해 광주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제작됐다. 광주투어는 지난달 28일 방탄소년단(BTS) 멤버 제이홉의 '치킨누들

수프' 커버댄스에 도전한 광주 시민들의 영상이 빛튜브를 통해 공개된 후 3일 만에 10만 뷰를 넘어서는 등 인기몰이를 한 데 힘입어 추진됐다. 광주시는 지난달 초 사전 공지를 통해 신청을 받은 후 추첨을 통해 최종 10명과 동반 1인 등 20명을 투어 대상자로 선정하고 지난달 21~22일 투어를 실시했다.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투어 대상자들은 '치킨누들수프' 가사 속

에 등장하는 총장로·금남로를 시작으로 국립 5·18민주묘지, 무등산, 양림동, 1913 송정역 시장 등 광주 대표 명소를 탐방하고 영상 속 춤을 직접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할 때는 주먹밥을 함께 먹으며 나눔과 연대, 저항으로 대표되는 5월 정신을 되새기기도 했다. 광주시는 이같은 소셜네트워크시스템(SNS) 마케팅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형호 기자 khh@

광주FC 전용구장 홈 개막전 불투명

시설기준 관람석 1만석 갖추려면 공사 4월까지 이어질 듯

K리그1으로 승격한 광주시민프로축구단(광주FC)의 시즌 첫 경기가 광주 축구 전용구장에서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가 지난해 초부터 풍암동 월드컵경기장 내 보조경기장을 전용구장으로 만드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공사 일정상 시즌 개막 전까지 경기장 시설을 1부리 기준에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부터 사업비 164억원을 들여 축구전용구장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다. 분부서는 지난 해말 완공됐고, 관람석 7000석은 2월 중

완료 예정이다. 기존 조명시설을 개선하는 작업도 마무리 단계다. 지난 2001년 설치한 기존 조명타워를 기동만 재활용하고 등기구(메탈할라이드)를 최신 발광 다이오드(LED) 스포츠조명으로 교체하는 작업은 이달 중 마무리된다.

조명 교체가 마무리되면 디지털 밝기 조절 기능(DMX)을 활용한 용도별 조명 밝기 조절이 가능해진다. 특히 텔레비전(TV) 중계급 조도, 프로축구 조도, 일반 또는 연습경기 조도로 조절할 수 있어 전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1부리 경기를 치르기 위해선

K리그(한국 프로축구연맹)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공정을 고려하면 시즌 개막 전까지 공사가 끝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K리그1의 경우 관람석 1만석을 갖춰야 하는데, 올 2월 애초 예정됐던 7000석을 설치하고 나머지 3000석은 4월은 돼야 마무리된다는 게 광주시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올 4월까지의 기준에 경기가 열렸던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K리그 경기 개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지역 체육계 관측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K리그 시설 기준인 관람석 1만석을 갖추려면 4월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관람석 7000석 상태로 1부리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K리그 측과 최대한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디디의 우산’ ‘선량한 차별주의’ ‘체리새우...’ ‘순재와 키완’

“함께 읽어요” 전남도립도서관, 올해의 책 선정

전남도민과 함께 읽을 올해의 책으로 '디디의 우산' (황정은) 등 4권이 선정됐다. 전남도립도서관은 2일 도민과 함께 읽을 2020년 올해의 책으로, '디디의 우산' (문학), '선량한 차별주의자' (김지혜·비문학),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 (정소연·황영민), '순재와 키완' (어린이·오하림) 등 4권을 선정했다.

'디디의 우산'은 현대사의 의미 있는 사

건을 배경으로 소외당하는 사람들의 일상을 특유의 냉정한 언어로 형상화한 소설이다. '선량한 차별주의자'는 차별과 혐오의 시대에 지친 현대인이 꼭 읽어야 할 책으로 평가받았고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는 학창 시절 미묘한 친구 관계를 통해 다룬 사람의 시선에 과도하게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 없이 '나는 나답게, 너는 너답게' 살길 바라는 메시지를 주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공감을 얻었다.

'순재와 키완'은 미래에서 파견된 로봇 필립과 열 살이 되기 전 죽을 운명을 가진 주인공 순재를 통해 기술 발달이 먼저인지 사람의 목숨이 먼저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다. 도립도서관은 지난해 9월부터 한 달간 도내 도서관, 학교, 독서동아리, 유관기관 등을 통해 총 108권의 도서를 추천받은 뒤 1차·2차 심사를 거쳐 후보 도서 20권을 정해 도민 선호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올해의 책 4권을 뽑았다.

2020년 전남도 올해의 책 선포식은 올해의 책 작가와의 만남, 북 콘서트 등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2월께 개최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2-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투자·매도·교환

- 월산동 돌고개역 인접 소방도점 2층 주택 106㎡ 집 112㎡ 광방 등 1억4천
- 전원주택 적합 영광동 백수해안도 인근 1130㎡ 전방 총용 1억3천
- 서구 마루동 도로점 378㎡ 장기투자에 좋은 대지임 5억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664㎡ 주택 124㎡ 4억3천
- 전북 부안군 백산면 소재지 상업지 706㎡ 무인텔 등 적합 교환 가능 2억
- 목포시 외월도(일동) 329㎡, 638㎡ 투자전망 최고 평당 23만원
- 영광군 연산면 신성리 2648㎡ 주택 총용 전원생활 적합 1억7천
- 함평군 손불면 산림리 9143㎡ 집 67㎡ 귀농생활 적합 2억
- 별장 영산강 부근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450㎡ 건평 110㎡ 매도 2억8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청교·공장 등 적합 6억
- 제주도 서귀포 강정동 3647㎡ 빌라 등 25억 약국용 건물과 교환가능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참고·다세대 등 다용도 적합 2억9천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건강타운) 부근 대지 652㎡ 남향 가격조정 가능 5억5천
- 남구 덕남동 산10000㎡ 사할·화가 화실·작가 작품 활동 적합 건물 67㎡ 5억

상가 건물

- 백양사와 내장사 사이 추령고개 403㎡ 가게 197㎡ 커피숍·편의점 적합 1억4500
- 서석동 조대일 4층 상가 405㎡ 건물 919㎡ 임대 보증금 6천 월 280, 12억
- 운암동 아파트상가 지하 205㎡ 매입 2억 참고 사무실 적합 은행 7천 매도 1억6천
- 충장로 4가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200 매도 26억
- 농성동 상공회의소 뒤편 소방도점 상가주택 156㎡ 건물 140㎡ 4억2천
- 운암동 아파트 단지 인근 1124㎡ 건물 1733㎡ 전세 7천 월 680 임대 21억
- 유등 신축커피숍 대지 73㎡ 2중건물 30평 시설완비 은행 1억 매도·교환 3억6천
- 북구 임동 모델 318㎡ 건물 5층 528㎡ 은행 2억3천 매도 6억천

특급 물건

- 광산구 북룡동 그린벨트 3002㎡ 도로점 투자기치 최고임 5억5천
- 목포대부동 정계면 도림리 2중주거지 4413㎡ 경정 5억7천 동행 3억4천 매도 4억6천
- 화순군 동면 서성재 무등산 밑 광주 인근 최고별장지역 은행 2~3억 있는 별장과 상가 건물·원룸·나대지 등과 교환원, 매도는 5억~7억임
- 구례군 구례읍 서시천변(광의면) 11050㎡ 다세대·빌라·요양시설 적합 14억5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 옆문앞

요양병원, 힐링센터 부지/매/매

- 풍암동, 화순 전대병원 10분거리
- 현재 한옥식당 및 찜질방
- 계획관리지역 약3000평 (용적률 40% / 100)
- 보존관리지역 약2500평 (편백나무숲, 산책로 조성가능)
- 매매가격 33억5천만원 (용 20억포함)

힐링센터 공동투자자 모심

- 개인명의 재산을 법인으로 100% 전환 후 지분 50:50
- 공동대표 등기 후 투자자에서 100% 운영
- 투자금액 13억5천만원 (힐링센터 시설 리모델링 비용)

소유자 : 010-7570-7525

(나주시 남평읍 풍림죽림길 86)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케냐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 지국안내 •

북구 · 동광 266-1920 · 문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안 222-8171 · 안산 571-7658 · 오지 266-7601
· 동봉 433-1503 · 우산 433-1503

동구 · 남광 675-5530 · 동명 222-9054 · 동부 225-6001
· 중앙 222-9054 · 중앙 222-8171

남구 · 남부 652-0175 · 백운 651-1833 · 봉선 675-5530
· 송파 675-6605 · 진월 671-7276

서구 · 광천 382-5788 · 상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윤천 376-7153 · 치평 376-6511 · 풍담 603-0311
· 화정 369-1625

광산구 · 윤남 952-1687 · 월곡 959-1920 · 침단 973-2900
· 하남 955-0451 · 광산 944-0444